성파 스님, 군 장병 격려…“참된 불자 돼라”

상월결사, 10월 18일 육군훈련소
수계법회·문화공연 ‘잠시멈춤’
성파 스님 증명…장병 3500명

논산=유재상 충청지사장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논산 육군훈련소의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참된 불제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사단법인 상월결사(이사장 호산 스님, 봉선사 주지)는 10월 18일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관에서 수계법회와 문화공연법회 ‘잠시멈춤(PAUSE)’을 개최했다. ‘잠시멈춤’은 상월결사가 올해 5월 의정부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펼치고 있는 문화법회다. 수계법회와 함께 열린 이날 행사에는 군 장병 3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법석은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이 증명법사, 원로의장 자광 스님이 전계사로 동참해 갓 입대한 훈련병들에게 부처님의 계율 정신과 수행의 가르침을 전한 뜻깊은 자리가 됐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10월 18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수계법회 증명법사로 참석해 군 장병 3500여 명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했다.

1부 수계법회에서 법석에 오른 성파 스님은 “군 장병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라는 한마디로 법문을 대신했다. 스님의 덕담에 장병들은 “큰스님!”을 연호하며 환호를 보냈다.

전계사 자광 스님은 법문에서 “부처님의 계율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대자유인으로 이끄는 길”이라며 “오계는 해탈과 자유를 실현하는 지름길이자 불자의 생활신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살생·도둑질·음행·거짓말·음주를 금하는 오계를 차례로 설하고 “계율은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나 부처의 길로 나아가는 등불”이라고 말했다.

장병들은 합장한 채 “지키겠습니다”를 외치며 오계를 수지했고, 이어 참회와 연비의식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참된 불자가 될 것을 서원했다.

군 포교 원력도 한자리에 모였다. 상월결사와 통도사는 호국연무사 수계법회 지원금 5000만원을 호국연무사 주지 혜총 스님에게 전달했고, 선운사·월정사·봉선사·표충사 등도 후원금을 통해 군 포교에 힘을 보탰다. 상월결사 이사장 호산 스님은 “장병 포교는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불사”라며 “군법당이 수행과 평화의 도량으로 자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부 문화공연에서는 퓨전국악그룹 퀸, 국악가수 최예림, JH콰이어 어린이합창단, 할리퀸 댄스팀이 무대에 올라 흥겨운 공연을 선보였고, 장병들은 박수와 환호로 무대를 즐겼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종정 성파 스님과 원로의장 자광 스님, 상월결사 이사장 호산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 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 통도사 총무국장 진응 스님, 총무원 포교부장 정무 스님, 중앙종회의원 심우·진각·해량·덕림·법륜 스님 등이 함께했다. 또 고현석 국군불교총신도회장(육군참모차장), 류승민 육군훈련소장, 육·해·공군 현역 법사단, 불교어머니회, 전북·익산포교사단 관계자들도 참석해 법회의 의미를 더했다.

문제는 ‘종교편향’…끝내 사과 안 한 장동혁 대표

10월 21일, 진우 스님 재예방
불교계 현안 청취 수준에 그쳐
합장했지만 ‘종교편향’엔 침묵

기독교 편향적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발언과 합장 대신 목례로 인사해 불교계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월 21일 봉은사 구생원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다시 예방했다. 지난 9월 22일 서울 조계사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한 지 한 달 만이다. 이번에는 합장 반배로 예의를 갖췄지만, 논란이 된 기독교 편향적 발언에 대한 사과 표명은 없었다.

이번 방문은 애초 ‘사과의 뜻’을 전할 것으로 주목받았지만, 정작 예산심의 등을 앞두고 불교계의 현안을 청취하는 수준에 그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월 21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재차 예방했다. 이번에는 합장 반배로 예의를 갖췄지만, 논란이 된 기독교 편향적 발언에 대한 사과 표명은 없었다.

장 대표는 “더 일찍 찾아뵈려 했으나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으로 늦어졌다. 죄송하다”며 “참석한 의원들에게 불교계 현안을 말씀해 주시면 잘 챙기겠다”고 인사했다.

진우 스님은 “아무리 좋은 것도 자주 쓰거나 거칠게 쓰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 그것이 부메랑처럼 인과응보로 돌아온다”며 “정치도 계산이 필요하지만, 부드러운 언행과 지혜로운 판단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예방 자리는 공식적인 사과 없이 마무리됐고,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비공개 자리에서도 논란과 관련한 사과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예방 후 장동혁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달 전 취임 인사 이후, 예산심의를 앞두고 불교계 의견을 듣기 위해 방문했다”고 이날 예방 이유를 밝혔다.

“합장 대신 목례를 한 것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부족해 불편함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만 짧게 답했고, 기독교 편향적 발언에 입장을 묻자 “그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답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번 예방에서 합장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든 것은 마음에 중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런 형식적인 것으로 불편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그간 장동혁 대표의 ‘합장’이 아닌 ‘종교편향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고 공개 사과와 당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조계종 총무부장 성웅 스님이 “10월 21일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해 직접 사과할 예정”이라고 밝혀 추가 대응을 자제했다. 이날 장동혁 대표가 종교편향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는 하지 않아, 중앙종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내영 기자

회당 대종사 열반 62주기 추념불사 봉행

10월 16일 전승원 무진설법전
“깨달음 나누는 진각행자 되자”



진각종(통리원장 능원 정사)은 10월 16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1층 무진설법전에서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열반 62주기 추념불사’를 봉행하고 종조 열반의 의미를 되새겼다.〈사진〉

추념불사에는 총인 덕일 대종사를 비롯해 기로스승 경정·수성 정사, 통리원장 능원 정사, 종의회의장 증혜 정사, 교육원장 정법 정사,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 현강 정사, 위덕대 총장 보성 정사, 총금강회장 정명 각자 등 서울교구 스승과 유가족, 신교도, 학교법인 회당학원, 진각복지재단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추념사를 통해 “해가 거듭되면서 종조님을 향한 사무치는 마음과 그리움이 더할 때, 진각행자들의 화합과 종단의 발전을 위한 서원 또한 보다 더 굳건해지고 있다”며 “내년 진각기원 80년과 2년 후의 창교 80주년을 맞아 마음을 가다듬으며 종조님의 무진서원이 성취되도록 더욱 정진하자”고 전했다.

이어 “우리 모두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는 진각행자가 되자. 모든 진각행자들이 포교와 교화가 수행이라는 믿음으로 밝게 깨우쳐서 실천하면 밀엄정토는 생활 속에서 시나브로 실현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총무부장 법운 정사(서울교구청장)는 강도발원에서 “우리 진각행자들은 종조의 가르침인 창교 정신과 교법을 길이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안으로는 본심을 깨닫고, 밖으로는 자비를 실천하겠다”며 “종단의 실천이념인 생활불교, 실천불교가 이 땅에 뿌리내려 일체 중생들이 심인진리에 제도되고 밀엄정토가 구현되기를 서원한다”고 발원했다.

한편, 진각종은 이날 서울 총인원 내 탑주심인당과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열반지인 불승심인당, 탄생지인 울릉도 금강원, 미국 LA 불광심인당 등 국내·외 각 심인당에서도 62주기 열반절 불사를 일제히 봉행했다.

신중일 기자

조계사 주지에 담화 스님 재임

진우 스님 10월 22일 임명장 수여
담화 스님 “조계사 화합에 최선”

조계종 총본산이자 직영사찰인 서울 조계사 주지(사찰관리인)에 담화 스님이 재임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22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담화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조계사는 한국불교 총본산이며, 총무원과 같은 공간에 위치한 직할사찰로서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위상을 갖춘 한국불교의 상징”이라며 “주지 스님이 그동안 사찰 운영과 포교·전법에 큰 성과를 거둬 다시 한번 중요한 소임을 맡기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조계사는 주지 스님과 부주지 스님, 대중 스님들, 그리고 신도조직이 함께 힘을 모아 역량을 발휘해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심



하고 상호 협조 속에서 조계사의 위상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화 스님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것을 채우고 발전시키라는 뜻으로 기회를 주신 만큼 종단과 긴밀히 협력해 조계사 화합과 신도조직 활성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화 스님은 성오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0년 수계(사미계 수지)했다. 금강정사 주지, 연운사 주지를 지내고 조계종 총무원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포교원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호계원 사무처장, 제16·17·18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김내영 기자

봉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행

불기 2569(2025)년 법계 품서식

귀의 삼보하옵고 본 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화합의 승단을 목표로 본 종단 종헌 및 승니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계 품서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합니다.

종 정 운악 대륜
총무원장 혜일
고시위원장 지광
고시위원 도정, 지명, 동심

법계품서대상자

대종사(명사) 붕원스님, 동청스님, 지언스님, 경담스님, 제법스님
종사(명덕), 종덕, 대덕(혜덕) 일명, 법광, 지원, 동심, 지안, 정암, 석천, 무상, 지흘, 지명, 동철, 상천, 원경, 진명, 해정, 보륜

품서식 일시 불기 2569(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오후 1시 품서식 장소 일붕선원 대법당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고시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 일붕선원 / 전화 02) 991-8175, 8904 전송 991-8176